

#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시작은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1시26분(한국시간·미국 동부시간 22일 오후 12시26분)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화상 회의 형태로 개최되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 4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화상 회의 참석은 처음 K-방역 소개하며 ‘포용성 강화된 국제협력’ 강조 평화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 국제사회 지지 요청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이번이 네번째로, 취임 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직접 참석했던 지난 세 차례 총회와 달리, 올해는 사전 녹화 영상으로 참여했다. 이번 총회가 각국 정상 등 대표급 인사들의 사전 녹화한 연설을 상영하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있는 총회장에는 각국 유엔대표부 대사 등이 모이는 ‘제한적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운영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일 4일 전까지 유엔사무국으로 녹화 영상을 보내야 한다는 기준에 맞춰 지난 17일 제출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조연설은 총회 관행상 브라질 정상이 첫 연설에 나섰고, 유엔본부 소재 미국, 의장국 터키, 중국·러시아 등 5개 지역그룹 대표국가 정상들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총 10번째 순서를 배정받았다. 문 대통령 기조연설은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전 1시26분,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12시26분께 전 세계에 생중계 됐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다자주의가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질을 통해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살기 위한 다자주의’, 즉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의 실천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포괄적 안보를 위해서는 초국적 협력과 다자적 안전보장 체계가 필요하며 우리와 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장설을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요청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각국 정상들이 전 세계를 향해 자국의 외교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는 무대로 활용돼 왔다. 과거 문 대통령은 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당부를 호소했다. /뉴시스

## 文대통령 1만5천명 추석 선물 담양 대일술·충북 홍삼양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1만 5000명에게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 부부는 선물에 동봉된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평범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적었다.

또 “한 분 한 분을 걱정하여 방역과 재난 복구, 민생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올해 추석 선물은 담양의 대일술 또는 꿀, 충북의 홍삼양갱, 강원 원주의 견취나물, 경남 거제의 표고채, 제주 건고사리 등 각 지역의 특산물 세트 구성됐다.

선물을 받을 1만5000여명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과 7~8월 집중호우 대응 현장 등에서 헌신한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 고의적 감염병 확산 테러 규정 이병훈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이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테러방지법’)을 22일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폭발물, 폭발물 등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테러로 정의하고 있으나, 고의적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테러로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 확산 행위도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테러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보직신고를 받은 후 삼정검(三精劍)을 수차례 달아주고 있다.

## 與 ‘개천절 집회도 권리’ 주호영 맹폭... “자제 요청 쇼였나”

### 김종민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입장 분명히 밝혀라”

### 우원식 “서울 도심 교통 마비에 공권력과 행정력 낭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를 ‘참가자의 권리’라고 언급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집회를 부추기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러한 비이성적 발상에 대해 그사람들의 권리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나섰다”며 “국민 대부분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상과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 부흥 세력과 합작해 수도 서울을 코로나 교통 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이라며 “국민의힘이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 대응의 향

방을 좌우하는 집회에 대해 동조할지, 방조할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용래 최고위원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 집회를 주장한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극우 바이러스를 자임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전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광화문 사거리 막고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안 된다는 것인가”며 “김종민 비대위원장의 자제 요청은 결국 또다시 쇼였다. 광화문 집회 세력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우리가 남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전광훈

식 집단 광기”, “정치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라며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과 그안에 광기를 숨기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위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아닌, 그냥 차량 시위인 것이다. 차량 시위 역시 폭력이 예상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며 “김종민 위원장이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도심 교통마비는 둘째 치고, 수많은 차량에서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감시하기 위해, 장문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권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어야 하는가”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 정은경, 타임지 ‘올해 100인’ 선정 靑 “K-방역 글로벌 모범임을 국제사회가 인정 의미”

### 봉준호 감독도 올해 인물 100인에... “매우 기쁜 소식”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TIME)의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고 23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청장은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올해 타임지 100인에 선정됐다”며 “이번 선정은 K-방역이 곧 전 세계가 본 받아야 할 글로벌 모범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했음을 다시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정 청장의 선정 사실을 알리는 타임지 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소개글이 실렸다.

이 관계자는 “타임즈 측은 지난 7월 말 올해 100인 명단에 정 총장을 포함시키고 이를 해외인론비서관에 알려왔다”며 “그 선정 이유로 뛰어난 코로나 팬데믹 대응 업적을 언급했고 이에 따른 대통령 명의의 소개 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타임즈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정 청장의 전문성, 준비성, 국민과 소통, 무엇보다도 성실성을 케이방역 성공을 이끈 비결이라는 내용의 소개 글을 타임즈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특별히 미국 ABC사에서 타임즈 100인 한 명



씩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며 “정 청장의 타임즈 100인 지정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 방역 노력과 성과가 미 전역에 전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타임즈가 선정된 영향력 있는 100인은 2004년부터 매년 발표됐고 올해 17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타임지가 영화 ‘기생충’으로 이름을 알린 봉준호 감독도 ‘올해 인물 100’으로 선정됐다.

청와대는 ‘봉 감독 타임지 100인 선정은 매우 기쁜 소식이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뉴시스

##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안’ 행안위 통과

### 이재호 의원 발의...법사위 심의·분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다.

이재호 의원은 “22일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 심의와 분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향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직접 모집·접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열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을 비롯해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담담로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乡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약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면 열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결백 증명하겠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의혹과 이에 대한 여당, 다수 언론의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후된 농촌, 저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거친 풍파를 겪는 당을 걱정하며 나를 소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며 “지난 5년간 국토위에서의 정 활동을 했지만 건설업계 고공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한 것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32명 광주·전남 제2지역구 맡아 ‘호남 구애’ 나섰다

### 광주 장제원 하태경 김은혜 김용관 김예지 의원 등 8명

### 전남 김도읍 황보승희 이만희 이달곤의원 등 24명 배정

국민의힘이 23일 ‘호남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시작하는 등 호남 구애에 본격 나섰다.

2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당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고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직후부터 5·18 단체 간담회, 호남 현장 비대위 및 호남동행국회의원단 동행 지역 방문,

각 지자체별 현안 및 예산 간담회, 영·호남 공동추진사업 발굴 등을 차례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2의 지역구를 갖게 된 국민의힘 의원은 총 48명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은 32명이 배정됐다. 광주는 윤영석·장제원·이재의·윤재욱·하태경·김은혜·김용관·김예지 의원 등 8명이 각각 제2의 지역구를 맡는다.

전남지역은 여수 김도읍·하영재, 순천 김용 김영식, 목포 김기현, 나주 김형동, 광양 배현진 의원이 지역구를 책임진다. 군 지역의 경우 담양 이영, 곡성 황보승희, 구례 전봉민, 고흥 권명호, 보성 이명수, 화순 이만희, 장흥 임희자, 강진 서정숙, 해남 강대식, 영암 최승재, 무안 임태영, 함평 정희영, 영광 서범수, 장성 조해진, 완도 김성원, 진도 이달곤, 신안 윤두현 의원 등이 지역구를 책임지며 활약한다. 김종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호남에 지역구 의원이 없는 만큼 다 지역 의원들이 호남 지역구를 맡아 내 지역구처럼 쟁겨주기로 한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호매민평 이태헌

# 차등지원

코로나재난지원

나는 사람도 아니

1-15	16-34	35-64	65- 이상	우리는?
100%	80%	60%	40%	0%

타인